

018/200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작품의 주제, 반복, 반복되는 성격제시, 반복되는 주제의식.

중요성 확인!

##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 소설 삼대

#### S1. 조의관 vs 상훈 : 갈등원인 돈

| 인물  | 성격                  | 내면    | 사건 갈등 장면       |                |               |               |
|-----|---------------------|-------|----------------|----------------|---------------|---------------|
| 조의관 | 할아버지<br>'의관'<br>조선말 | 자기합리화 | ↑<br>돈 잘<br>써라 | ↓<br>자기<br>합리화 | ↑<br>다시<br>지적 | ↓<br>치부<br>밝힘 |
| 조상훈 | 아버지<br>'개화기'        |       |                |                |               |               |

㉠장면 : 조의관이 자기입장, 자기내면서술, 자기합리화

#### 증략

아마도, 상훈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니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유산. 돈이 없는 상훈. 유산은 받을 수 있는데, 유언장에 없는 정미소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들에게 돈을 받아내려 함. 세간 값.

#### S2. 상훈 vs 덕기 : 갈등원인 돈

| 인물 | 성격                     | 내면                        | 사건 갈등 장면                    |                 |          |               |
|----|------------------------|---------------------------|-----------------------------|-----------------|----------|---------------|
| 상훈 | 아버지<br>'개화기'<br>좌절, 타락 | 아들에 분노<br>여자에 잘<br>보이고 싶음 | ↓<br>돈<br>세간값<br>정미수<br>내 놔 | ↑<br>뻑치게<br>L L | ↓<br>죽빵? | ↑<br>동정<br>평가 |
| 덕기 | 손자<br>'개화기후'           | 아버지 동정<br>안타까움            |                             |                 |          |               |

㉠장면 : 덕기가 자기내면서술, 상훈 평가, 동정

크게 2장면. 상호텍스트적. 대칭 구조!

1 조의관 vs 상훈 = 돈때문.

2 상훈 vs 덕기 = 돈때문

갈등 원인. 핵심 => 돈 => 39

상훈 성격. 내면심리 추측 => 여자 밝힘. 가오 => 40번

전체 주제. 갈등 => 41

㉠대칭 플롯. 구조 => 42번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필요시 발췌독 해보면 됩니다. 주제, 갈등 원인인 돈에 초점을 두고 작품 감상하길 원하는 의도의 문항 설계. 1번 선지 바로 정답!

- ① 상훈의 부친은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려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40.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상훈의 성격. 내면심리 추측입니다.

할아버지-아버지와 의 갈등에서 보이듯

상훈은 자기가 돈을 써가며, 제자를 건드리죠.

그럴 정도로 여자를 밝히는데

여기서도 그 모습이 들어납니다.

구차해보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돈 문제로 싸운다?

가오 떨어집니다.

아들 입을 막은거죠! 5번 선지 바로 정답!

41.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주제 해당하는 갈등 전반 이해를 의도한 설계**

**치부, 동정, 다 핵심키워드. 하지만, 아들탓을 하진 않습니다. 정답 3번**

42.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서술방식, 전개방식이 특이한, 구조의 대칭인데,**

**아들 입을 막은거죠! 5번 선지 바로 정답!**

**소설 삼대**

S1. 조의관 vs 상훈 : 갈등원인 돈  
**㉠장면 : 조의관이 자기입장, 자기내면서술, 자기합리화**

중략  
 아마도, 상훈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돈을 함부로 쓰니 할 아버지는 손자에게 유산. 돈이 없는 상훈. 유산은 받을 수 있는데, 유언장에 없는 정미소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들에게 돈을 받아내려 함. 세간 값.

S2. 상훈 vs 덕기 : 갈등원인 돈  
**㉡장면 : 덕기가 자기내면서술, 상훈 평가, 동정**